

광양만권 조선·철강업체 속속 입주 '기업 유치 기폭제'

■ 준공 의미와 파급효과

전남 조선·중공업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큰 도움

세계 최대 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되면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전남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조선업 및 중공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후 산업기지로, 국내는 물론 광양만권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 가동을 앞둔 후판공장은 연산 200만 t 규모로 제강에서부터 출하까지 자동화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철강강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후판공장 가동 의미=포스코는 세계 최대 광폭 후판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광양제철소 공장 가동으로 후판 생산능력이 500만에서 700만t으로 늘게 됐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후판은 대형 컨테이너선박 건조 등 조선·해양산업이나 가스관 자재로 쓰이는 핵심 원자재다.

전남도가 조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가동으로 전 세계 최상급 품질의 후판 자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포스코와 전남의 조선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후판생산 공장은 모든 공정에서 용접과정을 줄여 원가를 절감하면서 도 철강 강도를 높여 국내 조선업체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제

철소는 이미 후판 공장가동 전부터 경쟁사나 수입재 대비 t당 20만원 이상 저렴한 후판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게 됐다.

내수시장에서는 철강재 수급난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국내 조선, 중공업 고객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형 컨테이너선 및 LNG선 건조 등에 필요한 고급 후판재의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후판 공장 설립에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1조8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으며, 공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강을 생산할 수 있는 강압하를 위한 1만2000t급 압연기가 배치됐다. 또 강의 내부조직을 변화시키는 고속 냉각장치를 포스코 자체기술로 개발, 설치했다. 제강에서 출하까지 자동화 설비로 운영되는 일관시스템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경제적 효과= 후판공장이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게 된다. 현재 후판의 1t당 가격이 95만원선을 잡을 경우 전체 생산량(250만t)을 모두 출하하면 약 2조2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게 광양제철소의 추산이다.

후판공장 가동은 광양지역 기업유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공장가동과 맞물려 후판을 다루는 조선소나 철강업체 13곳이 광양지역에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회사들은 신규 인력 1만2000여명을 채용할 예

광양제철소 전체	▶인원
	광양제철소 약 6000여명 외주파트너사 약 7000여명
	▶후판공장 개요
	공사기간: 2008. 08~2010. 07 공사비: 1조8000억원 생산량: 200만톤/년 공정률: 100% 후판공장부지: 38만㎡
	▶제철소 면적
	564만평(주력단지 포함)

정이다. '후판 효과'로 유입될 인구는 최근 10년간 늘어날 광양시 인구 7000명보다 많은 수치다.

광양시는 후판공장 가동에 따라 광양시가 철강·조선·해양 플랜트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2년간의 후판 공장건설 공사 기간 동안 연간 60만 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됐고, 500여명의 상시 고용효과도 있었다.

◇철강 물동량 처리 인프라 시급=여수지방해양항만청 분석결과 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5개의 연간 처리 능력은 5000t이었다. 지난해 광양제철소 원료나 철강제품 운반 등 총물동량이 6500만t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후판 본격생산과 다른 철강 생산량 증가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 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광양제철소는 물류 처리 부족 상황을 예견해 20만t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 한 개를 2012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또 30만t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기존 3.4 부두를 35만t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3.4 부두 확충을 위해서는 부두 준설이 절실하다. 해양 항만청 등 관련 기관의 전폭 지원이 중요한 대목이다.

/광양=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정욱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제철소 내 38만㎡ 부지에 건립된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은 제강~연주~압연~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 직속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후판공장 압연운전실에서 첫 테스트용 제품 생산 공정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모든 공정이 성공하자 기뻐하고 있다. /광양=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포스코 자체 기술로 세계 최고 고급강 생산”

광양제철소 김준식 소장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언제 본격 가동되나?

▲후판 생산공장은 크게 제강공장, 연주공장, 후판공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 2008년 7월 착공한 연산 200만 t 규모의 후판공장은 최근 100%의 공정률을 보이며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로 30일 핫-테스트(시험제품 생산)를 거쳐 오는 10월 본격 가동된다.

-후판공장을 건설한 이유는?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폭발적인 후판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광양 4고로 능력확장공사 이후 늘어나는 쇳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8월 광양제철소 하이밀 공장 인근 38만㎡ 부지에 총 1조 8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200만 t 규모의 후판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

-후판공장의 핵심과 최첨단 공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강을 만들 수 있도록 1만2000t 압연기를 설치했고 모터 토크를 1080T-m로 도입했다. 또 강의 내부 조직을 변화시키는 고속냉각장치를 포스코 자체 기술로 설계 및 제작, 운전까지 하게 돼 포스코 고유



의 고급 후판 강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후판공장 가동으로 국내 후판 수급난은 어느정도 해소되는가?

▲약 200만 t의 후판을 새로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 기존 후판 생산량(500만t)까지 합치면 총 700만 t 이상을 생산하게 돼 국내 후판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나?

▲후판공장 준공으로 국내 조선, 중공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세계 1위 후판 생산업체로 우뚝 서게 된다.

또 후판공장에 필요한 슬래브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제강공장까지 완공되면 포스코의 조강생산능력은 2011년 4000만t으로 증가해 아르셀로미탈에 이어 세계 2위의 철강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광양=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